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와 분류체계

장유승*

<차 례>

1. 머리말
2. 물명서의 편찬동기
3. 물명서의 종류
4. 물명서의 분류체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동기를 당대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전하는 물명서의 분류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물명서의 성격을 재검토하는데 있다.

물명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언어와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일치시켜 해당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물명서의 편자들은 한자어 어휘에 해당하는 또다른 한자어 어휘 및 고유어 어휘를 제시함으로써 언어와 대상의 일치를 도모하였다.

그간 물명서는 사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서(類書)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으나, 현전하는 물명서는 사물의 이칭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물명서는 언어와 대상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서(字書)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또한 물명서의 분류체계를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사물에 큰 비중을 할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천(天), 지(地), 인(人)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물(物)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반영한다.

그간 물명서는 명칭대 백과사전식 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사물에 큰 비중을 할애한 물명서의 분류체계는 본초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제어 물명서, 유서, 자서, 한자어 어휘, 고유어 어휘, 본초서

1. 머리말

물명서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이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이가원은 이가환(李嘉煥), 이재위(李載威) 부자가 편찬한 『물보(物譜)』와 조선후기 실학사상과의 관계를 논하였다. 그는 『물보』에 수록된 사물이 “모두 인민들의 이용후생적인 자료”이며, 한자어 물명에 한글로 표기한 고유어 물명을 덧붙인 것은 “실학과의 민족자주적인 전통적 사상에서 흘러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선후기 물명서의 편찬이 실학사상에 바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명서와 실학사상과의 관계는 이후의 연구에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으니, 이가원의 연구는 물명서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물명서는 명물도수학(名物度數學)을 위시한 실용적 학풍이 성행하는 시대적 배경 하에 편찬되었으며,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부분의 물명서는 사물의 이칭만을 수록하였을 뿐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물명서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를 위시한 백과사전 성격의 유서(類書)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한다. 물명서의 이른바 실용적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명서의 고유어 어휘에 대해서도 차츰 균형잡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명서 편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한자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이병

1) 이가원, 『『物譜』와 實學思想』, 『인문과학』 5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0.

근의 지적²⁾, 그리고 물명고는 “주석에 달려 있는 한글을 이해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표제항으로 되어 있는 한자 또는 한자어를 이해하기 위해 편찬된 것³⁾이라는 홍윤표의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들의 지적대로 물명서의 고유어 어휘는 어디까지나 한자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 기능에 머물러 있다. 고유어 어휘가 물명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은 한자어 어휘만으로 구성된 물명서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명서에 수록된 고유어 어휘의 국어학적 가치는 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물명서의 고유어 어휘 사용에 과도한 민족주의적 의의를 부여하거나, 단지 고유어 어휘가 수록되었다는 이유로 성격이 상이한 저술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자 하는 시도는 물명서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본고는 물명서와 실학사상과의 관계, 그리고 물명서의 한글 사용에 주목한 선행 연구와 관점을 달리하여, 조선후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물명서에 대한 언급을 검토하여 물명서의 편찬동기를 당대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현전하는 물명서의 분류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물명서의 성격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2. 물명서의 편찬동기

“『시경』을 읽으면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多識於鳥獸

2) “표제항들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면 그 표제항들이 독자에게 주는 지식은 한자 자체에 대한 지식 이외에 한어 아니면 한자어에 대한 지식이지 우리말 자체의 이해를 위한 지식은 아닐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이병근, 『近代國語 時期의 語彙整理와 辭典的 展開』, 『진단학보』 74집, 진단학회, 1992, 198쪽)

3)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집, 진단학회, 2013, 197쪽.

草木之名”라는 공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물명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물명을 대상으로 삼은 전문적인 저술인 물명서의 편찬은 어디까지나 조선후기의 현상이다. 따라서 물명서의 편찬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문헌 자료의 물명서 관련 언급을 일별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문헌 자료에서 물명에 관한 책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책은 다음아닌 역학서(譯學書)이다.

① 사역원의 물명책(物名冊) 1권을 아직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행이 머지 않았으니 지금 질정(質正)하고 습독(習讀)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⁴⁾

② 연전에 청학 당상(淸學堂上) 현문항(玄文恒)이 청어물명(淸語物名)을 얻어와 청학 김진하(金振夏), 한학(漢學) 변헌(邊憲) 등과 교정하여 책으로 만들고 『동문유해(同文類解)』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 하권인데 온갖 물명이 모두 실려 있어 통역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 책을 시강(試講)한 뒤로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역원은 물력이 피폐하여 간행할 길이 없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지금 왜어(倭語) 『첩해신어(捷解新語)』를 이미 교서관에서 간행을 시작하였다고 하니, 청어 『동문유해』도 교서관으로 하여금 20권을 간행하고 장황(粧纒)하여 사역원으로 보내 관생(官生)들이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

4) “金在魯曰, 司譯院物名冊一卷未下, 而使行不遠, 方欲質正習讀而入去云矣. 上曰, 當下之矣.”(『承政院日記』英祖 12年 9月 25日)

5) “年前淸學堂上玄文恒, 得來淸語物名, 與該學金振夏, 漢學邊憲等, 校正成書, 名之曰同文類解. 此乃上下卷, 而凡百物名, 無不備載, 大有益於通話, 此冊試講之後, 頗能有效, 而但譯院, 物力凋弊, 未有開刊之路, 誠爲可惜. 卽今倭語捷解新語, 已自芸閣開刊始役云, 淸語同文類解, 亦令芸閣, 同爲開刊印粧二十件, 移送東院, 以爲官生輩鍊習之地, 何如.”(『承政院日記』英祖 24年 9月 14日)

③ 몽학 당상역관(蒙學堂上譯官) 안세제(安世濟)와 당하역관(堂下譯官) 이귀령(李龜齡)은 함께 사재를 털어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8책과 『물명(物名)』 2책을 간행하여 대소(大小) 과시(科試)에 사용하였습니다.⁶⁾

④ 수역(首譯)들이 말하기를, “왜어물명책자(倭語物名冊子)는 사역원에 도 있는데, 차례차례 옮겨적었으므로 오류가 많습니다. 또 저들[倭人]의 방언(方言, 倭語)이 변한 것도 있어 옛책을 다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왜인을 만나거든 그 오류를 바로잡아 완전한 책으로 만들어 익힌다면 방언의 물명(物名)을 환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과 대화할 적에 필시 막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므로 삼사(三使)가 상의하여 바로잡기를 허락하고, 현계근(玄啓根)과 유도홍(劉道弘)을 교정관(校正官)으로 삼고 수역에게 감독하게 하였는데, 책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⁷⁾

⑤ 언어를 배우는 관건은 물명을 널리 알아서 비슷한 것을 만나면 변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막힐 우려가 없습니다. 고(故) 정승 민정중(閔鼎重)은 이 점을 유념하여 역관 김지남(金指南) 등을 시켜 중국인에게 질문하여 『성어유해(成語類解)』 3책을 편찬하였으니, 이는 실로 물명의 부고(府庫)입니다. 천문(天文)과 인사(人事)로부터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것까지 거의 다 망라하였습니다. 또 대화의 긴요한 어구를 분류하여 증보하였습니다.⁸⁾

-
- 6) “蒙學堂上譯官安世濟, 堂下譯官李龜齡, 同捐私財, 印出蒙語老乞大八冊, 物名二冊, 仍用於大小科試, 上項八人之所稱功勞, 或因使臣及邊臣啓達.”(『承政院日記』 英祖 34年 2月 11日)
- 7) “首譯輩以爲倭語物名冊子, 譯院亦有之, 而以其次次翻譯之, 故訛誤既多. 且彼人方言, 或有變改者, 舊冊難以盡憑. 趁此日對倭人時, 厘正其訛誤, 成出完書而習之, 則方言物名, 庶可洞知. 如是則與彼人酬酌之際, 必無所碍云. 故三使相議, 許其厘正, 以玄啓根劉道弘, 定爲校正官, 使首譯而董飭之, 未知可能作成書否也.”(趙曦, 『海槎日記』 12月 16日)
- 8) “大抵學語肯綮, 博識物名, 觸類變通, 然後自無扞格之患, 故相臣閔鼎重, 留意於

①은 1736년 김재로(金在魯)가 연행을 앞두고 영조에게 사역원이 소장하고 있는 ‘물명책’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다. 이 책을 학습하고서 연경에 들어가려는 의도였다.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역어휘집 성격의 역학서로 추정된다.

②는 1748년 이주진(李周鎭)이 『동문유해(同文類解)』의 간행을 요청한 내용이다. “오갓 물명이 모두 실려 있어 통역에 매우 유익하다”는 언급을 통해 물명의 습득이 역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③은 1758년 사역원에서 역관들에 대한 시상을 요구한 내용이다. 안세제와 이귀령이 『몽어노걸대』와 『물명』을 간행한 공로를 언급하였는데, 서명과 책수로 보건대 『물명』은 『몽어유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⁹⁾

④는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간 조엄(趙暉)의 기록이다. 당시 역관들이 이용하던 ‘왜어물명책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오류가 적지 않았는데, 당시 사신들이 제대로 된 책으로 편찬하여 간행할 것을 도모하였다.

⑤ 1818년 사역원에서 『오륜전비(伍倫全備)』 대신 김지남이 편찬한 『성어유해』를 교재로 채택하기를 요청한 내용이다. 김지남이 편찬하였다는 『성어유해』는 1690년 편찬된 『역어유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此, 使首譯金指南等, 質問於漢人, 編成語類解三冊, 此是物名之府庫也. 自天文人事, 至日用細瑣, 蒐羅幾盡, 又有行話緊句之分類增補者.”(『承政院日記』 純祖 18年 2月 26日)

9) 여기의 ‘물명’이 어떠한 책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안세제와 이귀령이 몽학 역관이므로 몽어 역학서임은 분명해 보인다. 당시 『몽어노걸대』와 함께 통행된 몽어 역학서로는 『몽어유해』와 『첩해몽어』 등이 있다. 『첩해몽어』는 1737년 처음 간행되었는데, 간행 당시의 권책수는 알 수 없으나 현전본은 모두 4권 4책이다. 『몽어유해』는 1768년 원편(原篇) 상하 2책, 보편(補篇) 1책, 총 3권 3책으로 간행되었는데, 최종 간행 시기는 이보다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명서’로 지칭되는 역학서는 대개 대역어휘 역학서이므로, 여기의 ‘물명’은 『몽어유해』 원편 상하 2책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언어를 배우는 관건이 물명이며 『역어유해』가 ‘물명의 부고’라는 언급에서, 이러한 역학서가 물명서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기록을 통해, 물명의 대역어(對譯語)를 중심으로 편찬된 『동문유해』, 『몽어유해』, 『역어유해』 등의 역학서가 물명서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학서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물명’은 구체적인 사물은 물론 추상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는 ‘어휘’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들 역학서는 어휘의 습득이 외국어 학습의 관건이라는 전제 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천(天), 지(地), 인(人), 물(物)로 구성된 이들 역학서의 분류체계 역시 조선후기 물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역학서와 물명서는 체제와 내용면에서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편찬 목적은 상이하다. 역학서는 외국어의 학습과 실무적 활용을 위해 편찬된 것이고, 물명서는 문언문의 이해에 그 일차적인 편찬 목적이 있다.¹¹⁾ 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역학서와 물명서를 성격이 상이한 문헌으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역학서 역시 물명서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물명서의 편찬동기를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은 서발(序跋)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물명서의 대부분은 서발이 없다. 서발이 있는 것은 이가환·이재위의 『물보』와 정약용의 『죽란물명고』 뿐이다. 이중 연대가 앞서는 『물보』에 수록된 이재위의 서문을 보도록 한다.

10) 민정중이 김지남 등을 시켜 한인에게 질문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통문관지』에 수록된 역어유해 책판에 관한 다음의 기록과 일치한다. “康熙壬戌(1682), 老峯閔相國, 令院官愼以行金敬俊金指南, 質問於漢人, 文可尙鄭先甲修正, 至庚午(1690), 令院官鄭昌周尹之興趙得賢捐財刊板.”(金指南, <什物>, 『通文館志』 卷8)

11) “한자어휘분류집은 근본적으로 중국 문헌에 출현하는 어휘를 표제항으로 올려 분류식으로 편찬한 사전이기 때문에 그 표제항 모두가 당시 조선에서 관용화된 한자어가 아니며, 더구나 조선 고유의 한자어휘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다.”(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2쪽)

공자가 말하기를, “조수와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물명 역시 강구해야 하는 대상이다. 하늘이 낳은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니, 만물의 성질이 모두 이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화엽(花葉), 과과(果瓜), 인개(鱗介), 우모(羽毛)의 부류가 산수와 들판 사이에서 널리 나고 번식하여 소과(蔬果), 주병(酒餅), 어육(魚肉), 약이(藥餌) 및 기물(器物), 복용(服用)의 바탕이 되어 사람의 이목구비와 신체를 기른다. ① 만약 물명에 밝지 않으면 비단 금근(金根)과 체두(棼杜)의 수치로 만대에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② 복신(伏神)을 그릇 복용하고 팽기(蟞蟻)를 잘못 먹는 자도 있을 것이다. 삶을 돕는 것이 도리어 삶을 해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식(衣食)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길흉(吉凶)의 예(禮)로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도 관혼(冠婚), 연향(燕饗), 염(殮), 제(祭), 전(奠)의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 ③ 만약 뇌작(鬯爵), 효수(肴羞), 관복(冠服), 당실(堂室)의 제도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예를 행할 수가 없다. ④ 또 『시경』의 비흥체(比興體)는 늘 의탁하여 뜻을 담는데, 만약 새와 짐승, 동식물의 실정을 알지 못하면 완물풍영(玩物諷詠)하여 옛사람의 뜻을 드러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아(爾雅)』를 지은 이유이다.¹²⁾

서두에 인용한 공자의 말은 명물도수학의 당위적 근거로 종종 인용되는 내용이다. 저자는 먼저 세상에 수많은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사물들의 명칭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는 “금근(金根)과 체두(棼杜)의 수치”이다. 이것은 당(唐) 한창(韓

12) “子曰多識草木鳥獸之名，蓋物名亦在所講也。夫天生萬彙，人爲最貴，故品物之性，盡入於用，凡花葉果瓜鱗介羽毛之類，羅生繁植於山澤原野之間，以爲蔬果酒餅魚肉藥餌及器物服用之資，以供人生耳目口鼻身體之養，苟物名之不明，則不獨金根棼杜之羞，貽笑萬代，或錯餌伏神，誤食蟞蟻者有焉，所以資生者反以殘生，可不慎歟。夫衣食者，人生之大端，故吉凶之禮，奉生送死之際，亦不出冠婚燕饗襲殮祭奠之間，苟不講於鬯爵肴羞冠服堂室之制，則禮無所措矣。且詩經比興之體，每托物寓義，苟不審於飛走動植之情，則無以玩物諷詠，而發古人之意矣。此爾雅之書所以作也。”(李載威, <物譜序>, 이가원(1960),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稗)이 천자의 수레 금근거(金根車)를 금은거(金銀車)로 잘못 교정하고, 이임보(李林甫)가 『시경』의 편명 <체두(杖杜)>를 장두(杖杜)로 오인한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문언문에 나타나는 물명에 해박하지 못하여 저지른 오류인데, 이것은 사소한 오류처럼 보이지만 당시 지식인들로서는 절실한 문제였다. 이 점은 여타 물명서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책은 경전이나 역사서가 아니면 보는데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뛰어난 학자라도 갑자기 다른 책에 쓰인 고사나 물명을 만나면 도리어 풀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경박한 젊은이들은 곁에서 비웃기도 한다. 그렇지만 선배들이야 무슨 해가 되겠는가.

나같은 사람은 학식이 형편없어 위로는 선배에 미치지 못하고 아래로는 후배에 미치지 못한다. 나이가 많아지자 지난날 기억한 것을 태반은 잊어버려 아이들이 물으면 대답하지 못하여 도리어 배만 불렀다는 비웃음을 초래한다. 늙었다고는 하지만 부끄럽지 않겠는가. 마치 긴 여름철인데다 달리 할 일이 없어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감개가 그치지 않는다. 상자를 뒤지며 한가로운 때를 보내려 하였는데, 물명을 대충 초록한 서첩이 나왔다. 마치 옛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 다시 새로운 단어를 얻으면 모아서 다시 적어 스스로 쓰기도 하고, 질문에 대답하기도 하였다.¹³⁾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이 『물명잡초(物名雜鈔)』의 편찬동기를 밝힌 글이다.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여 비웃음을 받는 수치를 피하

13) “書非經史，則看不著力，故雖鴻匠碩學，猝當他書所用故事與物名，反多不解，則少年輕儇，或從傍竊笑之，然於先輩何傷焉。如愚者，學殖荒蕪，上不及前輩，下不逮後出，年既襄邁，前日所記臆者，大半遺忘。兒輩有問，則無以應答，反致腹便便之譏笑。雖云老矣，可不恥哉。適當長夏，更無所事，回思往日，感慨不已。搜出蠹篋，以爲送閑，有小摺子略鈔物名者出焉。如逢久要，復得新語，萃以更書之，或爲自用，或爲酬問。”(李圭景, <物名雜鈔辨證說>, 『五洲衍文長箋散稿』)

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니,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둔 편찬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명잡초』의 편찬은 일상적인 독서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물보』를 비롯한 그밖의 물명서 역시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편찬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방언(方言)과 한자(漢字)는 본래 길이 다르니
 물명을 알지 못하면 학술이 거칠다네
 진서(眞書)를 번역하려면 언문(諺文)에 익숙해야 하니
 큰 선비에 힘입어 범례를 만들었네

우리나라는 일체의 천문(天文), 지리(地理), 신체(身體), 복용(服用), 궁실(宮室), 초목(草木), 조수(鳥獸), 충어(虫魚)의 명칭을 모두 방언으로 부른다. 그러므로 글을 보면 어지러워 하나로 귀결되지 않아 실로 ‘책은 책이요 나는 나’라는 탄식이 있다.

내가 연경에 갔을 때 물명고(物名考)를 편찬하고자 하였다. 그 범례는 먼저 한자로 하나의 물명을 큰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 언문 작은 글씨로 ‘방언으로는 아무 물건이라고 한다’라고 썼으니, 천자(天字)의 주석에 ‘하늘’이라고 쓴 것과 같다. 그런데 관화(官話)를 깊이 이해하는 역관이 있어 연경의 선비에게 질문해야 하고, 또 그 옆에 본국의 문사가 있어 참고하여 언문으로 받아적어야 하니, 마치 불서(佛書)를 방융(房融)이 받아적은 것처럼 한 뒤에야 책을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부릴 만한 역관이 없어 생각은 있었지만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번 행차에는 좌형(左衡, 權永佐)이 있으니 함께 범례를 만들고 한 역관을 데려가 두루 묻고 자세히 살펴 나의 고심을 이룬다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채약고반(揣籥叩槃)¹⁴⁾하는 병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니다.¹⁵⁾

14) 소식(蘇軾)의 <일유(日喻)>에,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태양을 알지 못하여 ‘태양의 모습은 구리쟁반과 같다’는 말을 듣고서 구리쟁반을 두드려 소리를 들어보고는

신위(申緯, 1769~1845)가 1817년 연경으로 가는 한치응(韓致應)을 전 송하며 지은 시다. 신위는 이 시의 주석에서 과거 1812년 자신이 연행하였을 때 『물명고』를 편찬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일을 회고하며, 한치응에게 이 책을 완성하도록 당부하였다.

시주(詩註)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위가 물명서를 편찬하고자 한 의도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로 인해 독서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 문제는 물명서의 저자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문제로서 물명서 편찬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죽란물명고』 1권은 내가 편집한 것이다.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므로 하나의 물건을 말하면 그것이 곧 글이고, 하나의 물건을 글로 쓰면 그것이 곧 말이다. 그러므로 명(名)·실(實)이 어긋나지 않고 아(雅)·속(俗)의 구별이 없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시험삼아 마유(麻油) 한 가지만 논하더라도 방언(方言)은 참기름[參吉音]이고 문자(文字)는 진유(眞油)인데, 사람들은 진유가 아정한 줄만 알고 향유(香油), 호마유(胡麻油), 거승유(荳藤油) 등의 본명이 있는 줄은 모른다. 또 어려운 점이 있다. 내북(萊菔)은 방언으로 무우채(蕪尤菜)인데, 이것이 무후채(武侯菜)의 와전인 줄 모른다. 송채(菘

훗날 중소리를 듣고 태양으로 여겼다. 또 ‘태양의 빛은 촛불과 같다.’라는 말을 듣고서 촛불을 만져보고 형체를 파악하였는데, 훗날 피리를 만져보고는 태양으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다.

- 15) “方言漢字本殊塗，名物茫然學術癡。譯語翻眞詳診讀，發凡起例賴鴻儒。我國於一切天文地理身體服用宮室草木鳥獸虫魚之名，皆以方言呼之，故臨文惛恍，莫之歸一，案有書自書言自言之歎。余入燕時，擬纂物名考，其例先以漢字大書一物名，次以諺字細書方言曰某物，如天字注 天 之類是也。須有舌官深解官話者，質難於燕士，又須傍有本國文士參訂諺受，如佛書房融筆受之例，然後可以成書。其時無舌官可使者，有意未就。今行既有左衡，相與發凡起例，隨一舌官，博訪詳訂，以就不佞之苦心，庶幾東方學者，免有揣籥叩槃之病，案非細行也。”(申緯, <送韓勇山尙書賀至之行>, 『警修堂全藁』 4冊)

菜)는 방언으로 배추[拜草]인데, 이것이 백채(白菜)의 와전인 줄 모른다. 이로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그중 하나만 배워도 충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를 배워도 부족하다.

나는 물명을 편집하면서 본명을 위주로 삼되 방언으로 풀이하고, 종류별로 분류하였다. 모두 30장인데 빠진 것이 반이 넘는다. 그러나 규모가 정해졌으니 아이들이 이어서 완성하기를 바란다.¹⁶⁾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언급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물명서 편찬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명(名)·실(實)의 차이, 즉 언어와 대상의 괴리이다. 언어와 대상의 괴리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 있다.

‘아·속의 구별’에서 아·속은 간혹 표준말과 방언으로 이해되곤 하는데, 『죽란물명고』 내에는 표준말과 방언을 구분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아·속은 문어와 구어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다시 말해 한자어 물명은 아에 해당하고, 고유어 물명은 속에 해당한다.

정약용은 이 글에서 ‘본명’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향유, 호마유, 거승유 등이 참기름의 본명이라는 언급으로 볼 때, 한자어 물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명을 편집하면서 본명을 위주로 삼았다’는 언급으로 보건대, 『죽란물명고』의 표제어로 수록된 용어들이 본명에 해당한다고 하겠

16) “右竹欄物名攷一卷，余所輯也。中國言與文爲一，呼一物便是文，書一物便是言。故名實無舛，雅俗無別。東國則不然，試論麻油一種，方言曰參吉音，文字曰眞油，人唯知眞油之爲雅，而不知有香油胡麻油苳藤油等本名也。又有難者，萊菔方言曰蕪尤菜，不知是武侯菜之訛也。苳菜方言曰拜艸，不知是白菜之誤也。由是言之，中國學其一已足，東國學其三猶不足也。余爲輯物名，主之以本名，釋之以方言，類分彙輯，共三十葉，其漏者過半。然規撫既立，庶兒曹繼而成之。”(丁若鏞, <跋竹欄物名攷>, 『與猶堂全書』第1集 詩文集 第14卷)

다. 『죽란물명고』에서는 한 가지 사물의 여러 가지 한자어 물명을 모두 표제어로 등재하였는데, 이는 문언문의 독해를 위한 사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요컨대 『죽란물명고』의 편찬동기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이칭에 대한 무지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편찬동기와 용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서문의 내용만 본다면 『죽란물명고』의 편찬은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현전하는 물명서 가운데 『죽란물명고』의 이본이 가장 많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자 정약용의 학문적 위상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죽란물명고』 이본은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저자 미상의 『죽란물명고』가 널리 유통된 이유는 『죽란물명고』의 체재와 내용이 물명서의 근본적 기능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다시 『물보』의 서문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물보』 편찬의 두 번째 동기는 약물의 오용에 대한 우려이다. “복신(伏神)을 그릇 복용”했다는 것은 유종원(柳宗元)의 <변복신문(辨伏神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유종원이 의원에게 처방을 받고 시장에서 복신을 구하여 복용하였으나 병이 더 심해졌는데, 알고 보니 토란[老芋]이었다는 것이다. “팽기(虻蟻)를 잘못 먹는 자”는 진(晉) 채모(蔡謨)의 고사이다. 채모가 팽기를 방계(螃蟹)로 오인하고 먹었다가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이다. 모두 언어와 대상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이다. 서문의 내용대로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 생명을 잃는 사고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물명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 점은 물명서의 실용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비근한 사례이다.

세 번째 편찬동기는 예식이다. 명물도수학은 본디 경전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것이다. 경전의 이해는 단순히 학문적 차원에 머무르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예식이 경전을 근거로 시행되므로, 경전에 등장하는 제도 및 각종 사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문어와 구어의 차이로 종묘에 올리는 제물조차 논란이 있었으며¹⁷⁾, 국혼(國婚)에 쓰이는 물품조차 그 물명을 알 수 없는 것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⁸⁾, 명물도수학에 바탕한 경전의 정확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네 번째 편찬동기는 시작(詩作)에의 효용이다. 사물에 의탁하여 뜻을 말하는 것이 시경 이래 모든 시의 기본적인 구성인만큼, 물명에 대한 이해가 시작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앞의 세 가지 동기에 비해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이 역시 물명서 편찬동기의 하나로서 물명서의 용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3. 물명서의 종류

1) 유서류 물명서 / 자서류 물명서

심경호에 따르면, 한국의 유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① 사물의 장실(掌實)과 기원을 검색하기 위한 공구서, ② 사물의 이름과 성질을 표시하는 어휘들을 의미적 상관에 따라 분류하고 간략한 훈석(訓釋)을 붙인 공구서, ③ 아동의 한자학습을 위한 공구서, ④ 외국어 학습을 위한 공구서

17) “中國人則物名以文字傳之，故保無差誤，不如我國人之兼有方言而易訛也。”(李頤命, <太廟祭物變革議>, 『疎齋集』 卷9)

18) 1749년, 영조는 가례(嘉禮)의 진배물종(進排物種)을 정리한 『국혼정례(國婚定例)』를 열람하였는데, 편찬의 책임을 맡은 박문수(朴文秀)가 “물명을 알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 英祖 25年 11月 23日)

를 모두 유서의 범주에 포함하였다.¹⁹⁾ 그러나 심경호는 이중 ①만을 유서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의 역대 유서 편찬의 실상과 우리나라 목록서의 분류에 근거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유서의 범주는 ①에 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분류에 따르면 물명서는 ②에 해당하므로 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실 전통적인 문헌 분류의 관점에서 물명서는 유서라기보다는 자서(字書)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실상과는 달리, 지금까지 물명서는 유서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유서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명서의 국어학적 자료 가치가 강조된 탓이기도 하다. 홍윤표에 따르면 “한자나 한자어를 표제어로 삼고, 부분적으로 한글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 유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²⁰⁾

- ① 한자 및 중국어에 대한 유서 : 『훈몽자회(訓蒙字會)』, 『유합(類合)』
- ② 경서에 대한 유서 : 『삼경사서석의(三經四書釋義)』, 『어록해(語錄解)』
- ③ 역학 관계의 유서 : 『역어유해(譯語類解)』, 『동문유취(同文類聚)』, 『몽어유해(蒙語類解)』, 『왜어유해(倭語類解)』
- ④ 물명에 대한 유서 : 『물명고(物名考)』, 『물보(物譜)』, 『재물보(才物譜)』

이상 네 가지 부류의 문헌은 고유어 어휘가 수록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문헌 분류의 관점에서 이들 문헌의 성격은 다소 이질적이다. 우선 ①은 초학자를 위한 한자 학습서로서 조선 초기부터 편찬되었는데, 19세기를

19) 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89쪽.

20) 홍윤표, 『柳愔의 『物名考』』, 『어문연구』 2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279~280쪽.

전후하여 편찬된 실용적 성격의 물명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② 역시 추상적인 개념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위주로 한 실용적 물명서와는 거리가 있다. ①과 ②는 사고전서(四庫全書)의 분류에 따르면 경부(經部) 소학류(小學類)로 분류되며, 이것은 유서가 아닌 자서의 범주에 속한다.

③에 속하는 문헌들은 국어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문헌들이다. 사고전서에는 이러한 외국어 학습서에 대한 분류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역시 자서에 가깝다고 본다. ③은 고유어 어휘를 다량 수록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분류체계상 물명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로 인해 역학서가 물명서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④는 현재 물명서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헌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문헌은 체재와 내용에 따라 범주를 달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물명서는 기본적으로 피정의항과 정의항으로 구성된다. 물명서의 경우 사물의 한자어 물명이 피정의항이라면, 사물의 정의, 이칭, 유래, 속성, 용도 등은 정의항에 해당한다. 한자어 물명에 부기된 고유어 물명 역시 정의항에 속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명서는 정의항이 자세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물명서가 중국 역대의 거질 유서 및 조선후기 실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유서와 상이한 점이다. 유서가 표제항으로 등재된 사물에 대한 이칭, 유래, 속성, 용도, 관련 자료 등을 폭넓게 제시하는 반면, 물명서는 이칭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명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유서라는 개념이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니다.

『물보』와 『청관물명고』의 정의항을 분석한 이덕희에 따르면, 『물보』의 경우 약 80%, 『청관물명고』의 경우 약 70%가 ‘다른 단어로의 대체에 의

한 정의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순수 언어(어휘)사전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한다.²¹⁾ 여타 물명서의 경우, '다른 단어의 대치에 의한 정의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주의할 점은, 물명서에 따라서는 정의항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항목도 많다는 점이다. 정의항이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 많은 물명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유희의 『물명고』, 이만영의 『재물보』 등은 정의항에서 사물의 이칭과 속성,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유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밖의 대부분의 물명서는 사물의 이칭만을 간략히 다루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유서라고 하기 어렵다. 전자가 유서의 범주에 가깝다면 후자는 자서의 범주에 가깝다. 필자는 전자를 '유서류 물명서', 후자를 '자서류 물명서'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유서류 물명서는 『물명고』와 『재물보』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밖의 물명서는 대부분 자서류 물명서에 해당한다.

2) 만물류 물명서 / 사물류 물명서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된 물명서는 총 39종이다.²²⁾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경서어휘분류집에 해당하는 1, 6, 그리고 분류체계가 아예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30, 36, 37을 제외한 나머지 물명서의 분류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1) 『물보』는 전체 1029개의 표제항 가운데 914항, 『청관물명고』는 전체 1509항 가운데 1069항이 이에 해당한다.(이덕희, 『물보와 청관물명고의 사전적 특성』, 『새국어교육』 7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280쪽)

22) 정승혜(2014), 앞의 논문. 본고에서 부록으로 제시한 물명서 일람표는 홍윤표(2013), 앞의 논문과 정승혜(2014), 앞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하의 번호는 물명서 일람표의 번호를 지칭한다.

첫째는 전통적인 유서의 분류체계에 따라 천·지·인·물로 분류된 것이다. 현전하는 물명서 중에는 3, 4, 7, 8, 20, 21, 24, 25, 27, 29, 34, 35의 12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12종의 물명서의 세부 항목은 천·지·인·물의 네 가지 상위 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는 천·지·인·물 가운데 물에 해당하는 항목 위주로 구성된 분류체계이다. 현전하는 물명서 중에는 2, 5 및 다산 물명서의 이본에 해당하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6, 28, 31, 32, 33, 38, 39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같은 분류체계의 차이는 ‘물’ 개념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은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만물(萬物)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천, 지, 인, 물의 구분에서와 같이 만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물(事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 ‘물’은 동물, 식물, 광물 따위의 자연물 및 의식주를 비롯한 각종 인공물에 국한된 개념이다. 필자는 이러한 물 개념의 차이에 입각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현전하는 물명서를 ‘만물류 물명서’와 ‘사물류 물명서’로 구분하고자 한다.

만물류 물명서의 분류체계는 세계의 모든 존재를 천문, 지리, 인사, 사물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 역대 백과사전식 유서류의 보편적인 분류체계이다. 당(唐)의 『예문유취(藝文類聚)』, 송(宋)의 『태평어람(太平御覽)』, 『책부원귀(冊府元龜)』,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연감유함(淵鑑類函)』 등이 모두 이러한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사물류 물명서의 경우, 천·지·인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예 없거나 소략한 반면, 초목(草木), 층어(蟲魚), 금수(禽獸) 등의 자연물과 의복(衣服), 음식(飲食), 기용(器用) 등의 인공물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인간의 삶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명서의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운표는 이전의 유서가 명물과 도수를 망라하여 표제항으로 삼은 반면, 물명서는 명물만을 표제항으로 삼았으며, 『재물보』의 천보, 지보, 인보, 물보 가운데 물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별도로 취급한 유서가 편찬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²³⁾ 본고에서 구분한 만물류 물명서와 사물류 물명서의 차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시대 변화에 따른 결과인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최경봉은 한자 학습을 위한 어휘집과 외국어 학습을 위한 대역어휘집은 “사물의 유형화를 통해 귀납적으로 분류체계가 이루어진” 반면, 박물지 성격의 분류어휘집은 “세계관에 의거해 연역적으로 이루어진 분류체계”라고 보았다.²⁴⁾ 최경봉이 언급한 ‘외국어 학습을 위한 대역어휘집’은 만물류 물명서에 가깝고, ‘박물지 성격의 분류어휘집’은 사물류 물명서에 가깝다. 물명서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만물류 물명서의 분류체계가 귀납적이며 사물류 물명서의 분류체계가 연역적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만물류 유서의 분류체계는 비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물류 유서의 분류체계는 비교적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물류 유서가 당대인이 공유하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물류 유서가 편자의 관심사에 따라 귀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증거라 하겠다.

사물류 유서가 귀납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증거는 또 있다. 이가환의 『잡설』, 김려의 『만선와잉고』, 이옥의 『백운필』 등은 독립적인 물명서는 아니지만 물명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 저술이다. 이러한 저술은 저자의 개

23) 홍운표, 『18, 19세기의 한글 유서와 실학: 특히 『물명고』류에 대하여』, 『동양학』 1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8, 486~487쪽.

24) 최경봉, 『‘물명고’의 온톨로지적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 의미학』 17집, 한국어의미학회, 2005, 27쪽.

인적인 관심사에 따라 수십 종의 물명을 변증한 것인데, 변증 대상은 대부분 사물류 물명서에서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물들이다. 상기 문헌들은 물명서 편찬의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헌들의 내용이 사물류 물명서에 가깝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물이야말로 물명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물명서의 분류체계

상술한 바와 같이 만물류 물명서의 분류체계는 역대 백과사전식 유서류의 보편적인 분류체계를 따른 것이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백과사전식 유서 역시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역어유해』, 『동문유해』, 『몽어유해』, 『왜어유해』 등의 역학 물명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물류 물명서의 분류체계의 전범은 무엇인가. 현전하는 역대 백과사전식 유서 가운데 사물류 물명서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취한 문헌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다만 사물류 물명서의 각 항목 명칭은 백과사전식 유서의 하위 항목과 동일한 것이 많다. 오행(五行)에 따른 분류나 조수초목, 의복, 음식, 기용 따위의 항목은 어느 유서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밖의 항목도 기존의 유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물보』의 충치부(虫豸部)는 『연감유합』, 『광재물보』의 ‘노석부(鹵石部)’와 ‘민업부(民業部)’는 각각 『본초강목』과 『고금사문유취』, 『죽란물명고』의 ‘주거류(舟車類)’는 『예문유취』, 『청관물명고』의 ‘잡물류(雜物類)’는 『태평어람』에 동일한 항목이 보인다. 결국 물명서의 분류체계는 기존의 유서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분류체계를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물명서의 각 항목을 천·지·인·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⁵⁾

	천	지	인	물
2			身體部, 人道部	草木部, 虫魚部, 虫彘部, 鳥獸部, 器械部, 器用部
3	天譜	地譜	人譜	物譜
4	天道部	地道部	人道部, 人倫部 君道部, 臣道部 形氣部, 民業部 庶流部, 文學部 禮節部, 軍旅部 音樂部	宮室部, 衣服部, 飲食部, 器用部, 技戲部, 物性部, 火部, 金部, 玉部, 石部, 鹵石部, 草部, 穀部, 菜部, 木部, 竹部, 果部, 鱗部, 介部, 禽部, 獸部, 蟲部
5				羽蟲, 毛蟲, 蠃蟲, 水族, 鱗蟲, 介蟲, 昆蟲, 草, 木, 土, 石, 金, 火, 木
7	天文部	地理部	人道部	禽獸部, 草木部
8	地道部	天道部	人事類	金石部, 獸部, 禽部, 飛虫走虫部, 魚部, 器用部·書畫部·飲食部
9			事情類, 親屬類 雜人類, 身體類	草木類, 鳥獸類, 蟲魚類, 宮室類, 舟車類, 服食類, 耕織類, 工匠類, 供奉類, 文武類, 戲俗類, 漁獵類, 雜事類
10			事情類, 親屬類 雜人類, 身體類	野草類, 鳥獸類, 蟲魚類, 宮室類, 舟車類, 服食類, 耕織類, 工匠類, 供奉類, 文武類, 戲俗類, 漁獵類, 雜事, 藥名, 雜物類, 官職類, 雜流, 雜物類
20	天道 節日		人物	飲食, 衣服, 器用, 樂器, 雜技, 書畫, 草木, 獸, 禽, 魚
21	天地類 節日類	天地類	人物類	雜技類, 樂器類, 器用類, 衣服類, 飲食類, 書畫類, 魚類, 禽類, 蟲類, 獸類, 艸類, 木類, 補遺類, 的對類
23			身體	衣服, 鞍具, 器皿, 沙器, 陶器, 木器, 石物, 皮物, 食物, 各色餅, 正果種類, 造菓種類, 牛肉類, 切肉所入, 加添, 小肉所入, 穀部, 魚部, 果部, 菜部, 禽部, 獸部, 蟲部

25) 아래 표는 본고의 부록으로 첨부한 현전 물명서 일람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일람표에 수록된 『葩經物名』의 각 항목은 『시경』 편차에 따라 배열되어 천지인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아울러 다산 물명서의 이본에 해당하는 일람표의 11~19에 해당하는 물명서 역시 이 표에서는 역시 제외하였다.

24	天道部 時令部	地理部	帝屬部, 君道部 臣職部, 官司部 親屬部, 人品部 性情部, 形貌部 人事部, 文學部 道術部, 典禮部 百戲部	居處部, 宮室部, 器用部, 舟車部, 貨寶部, 布帛部, 服飾部, 百穀部, 飲食部, 蔬菜部, 花卉部, 草卉部, 果品部, 樹木部, 飛禽部, 走獸部, 鱗介部, 蟲豸部
25	天類		人類, 身體	衣冠, 雜魚, 疾病, 雜戲, 事情, 飲食, 雜事, 雜器, 耕織具, 舟車, 牛馬, 魚獵, 宮室, 牀席, 博奕, 書畫, 樂器, 穀粟, 草類, 木類, 花類, 蔬菜, 菜果, 木類, 獸類, 翅虫, 又獸, 蟲類, 魚類, 木果, 金石, 火類, 膠漆, 補類鈔.
26	天文 屬之天	屬於地	年紀, 稱號 親戚, 師生 朋友, 位分 神部, 仙部 佛部, 人事部 喪事	身體, 穀食, 食物, 果實, 木部, 花部, 草部, 菜屬, 藥鹽, 獸部, 鳥部, 魚部, 翼虫部, 瓜虫部, 衣服, 服飾, 農具, 器皿, 褥屬, 輜物, 樂器, 針線, 造僕, 粧服, 佩物, 寶貝, 寶物, 鐵屬, 石屬, 舟屬, 車屬, 類聚, 工匠, 治物, 織家, 無形題, 丹青, 雜類, 漁獵, 軍物, 緞屬, 紙屬, 手才, 扇屬, 物類, 戲屬, 事情類, 造室, 病類, 瘡類, 藥名, 茶名, 香名, 妙文字
27	天文類	地理類		禾穀類, 飲食類, 魚鮮類, 菜蔬類, 果實類, 布帛類, 衣服類, 冠帶類, 寶貝類, 佩琬類, 器皿類, 什物類, 文房類, 帳席類, 宮室類, 輜乘類, 博奕類, 樂音類, 軍物類, 染色類, 金石類, 花草類, 樹木類, 禽獸類, 虫介類, 雜用類.
28				服着彙, 植物彙, 什物彙, 家粧彙
29	天部	地部	人部, 僧佛部 文部, 武部 身部, 巧藝部	居處部, 器用部, 玉帛部, 飲食部, 草木部, 禽獸部, 茶薰部, 農部, 行部, 化部, 雜部
32	節日		人倫, 人品 人事	文書, 方言, 器用, 魚肉, 飲食, 菜果, 衣冠, 居處, 國家
33				衣冠部, 飯羹部, 家袋部, 器械部, 禽鳥部, 獸牲部, 昆蟲部, 鱗介部, 花草部, 樹木部
34	天文類	地理類	人事類	體部類, 禾穀類, 飲食類, 魚鮮類, 菜蔬類, 果實類, 布帛類, 冠帶類, 衣服類, 鞋舄類, 寶貝類, 佩玩類, 器皿類, 什物類, 文房類, 帳席類, 宮室類, 輜束類, 船隻類, 量衡類, 書寫類, 畫圖類, 紡織類, 寶石類, 花草類, 樹木類, 禽獸類, 介虫類, 工器類, 冶匠類, 泥匠類, 音樂類, 軍器類, 雜技類, 雜錄類, 染色類, 文體類, 取才類
35	天文	地理	人倫人事, 性行 儒學, 文藝, 技術, 邦製, 仕止, 理生	花卉, 花木摠言, 禽獸, 昆虫, 禽獸摠言, 宮室, 器皿, 舟車, 金寶, 綵色, 服用, 食饌, 疾病, 喪祭, 雜類, 兵戎, 刑獄, 音樂

38				農産物, 植産物, 造産物, 水産物, 織産物, 工産物, 木造物, 鐵造物, 窯産物, 雜品物
39				文房具, 器用具, 飲食具, 果實具, 衣服具, 身體具, 花具, 草具, 羽虫具, 毛虫具, 人物具, 婚具.

각 하위 분류가 어떠한 상위 분류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구체적인 사물 위주로 구성된 사물류 물명서는 물론,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물을 모두 포함한 만물류 물명서 역시 구체적인 사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사물에 해당하는 내용은 단순히 항목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체 물명서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압도적이다. 따라서 만물류 물명서와 사물류 물명서 모두 핵심은 구체적인 사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19세기를 전후한 물명서의 편찬은 그간 천, 지, 인에 비해 비교적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물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반영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각 물명서의 항목별 표제항의 수를 정확히 산출하면 이 점이 더욱 확실히 증명되리라 본다.

그런데 천·지·인·물 가운데 물이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은 기존의 백과사전식 유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기존의 백과사전식 유서 역시 천·지에 비해 인·물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물명서의 경우, 인·물에 해당하는 항목만으로 구성된 만물류 물명서는 물론이거니와, 분류체계상으로는 천·지·인·물을 고루 갖춘 만물류 물명서라 하더라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천·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상당히 적은 편이며, 인·물에 해당하는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물명서의 전범은 기존의 백과사전식 유서가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물명서의 전범으로 본초서(本草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흔히 본초서라 하면 약재의 속성과 효능을 설명한 책으로 이해되곤 하지만, 본초서가 다루는 내용은 의학적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 본초서는 동물, 식물, 광물, 그리고 인공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물의 이칭과 속성, 용도를 설명한 책이다. 본초서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이시진(李時珍, 1518~1593)의 『본초강목(本草綱目)』인데, 우선 『본초강목』이라는 저술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옛사람은 의술을 배울 적에 본초를 위주로 하였다. 종종 그 맛과 효능을 시험하여 확실하게 안 뒤에야 조제하여 약을 지었다. 그러므로 약을 오용하는 일이 없었다. 지금 사람들은 정해진 처방만 배우니, 의술이 날로 형편없어진다.²⁶⁾

본초학의 중요성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이다. 과거의 의원들은 본초학을 깊이 연구하여 약재의 속성과 효능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처방을 내렸으나, 당대의 의원들은 그저 관습적인 처방을 암기하여 치료에 적용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환자와 병증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약재를 가감하여 처방할 필요가 있는데, 약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⁷⁾ 이처럼 본초학은 치료법이 아니라 치료법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이었다.

26) “古人學醫主本草，種種嘗試其性味氣分，各自了了，然後乃劑爲藥，故藥無誤用。今人學之以成方，則醫術日拙。”(丁若鏞, <茯苓李基讓墓誌銘>, 『與猶堂全書』第1集 詩文集 第15卷)

27) 다음의 언급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이다. “古者醫學，專習本草，凡草木之性之氣之毒之變之制，無不講究認明，臨病用藥，或病有一祟，可以一性一毒療之者，則用一料，或病有多端，纏結難解者，即用諸料，劑合相濟，故術精而效捷。後世不習本艸，專誦古方，如八味湯知爲溫補，承氣湯知爲涼瀉，直舉全方，如使一料，安得一一中病哉。故曰小學廢而文章不作，本草晦而醫技不精云。”(丁若鏞, <醫說>, 『與猶堂全書』第1集 詩文集 第10卷)

“『이아』와 『본초』를 읽고서 꽃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었다.”²⁸⁾는 진술에서 보듯,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초학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본초강목』은 당대 본초학의 정점에 자리한 저술로, 사물의 다양한 물명을 비롯하여 형태, 속성, 원산지, 사용처,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였다. 『본초강목』은 단순한 의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을 망라한 사물 백과사전이었던 셈이다.

『본초강목』은 총론에 해당하는 서례(序例)와 주요 질병의 치료법을 설명한 주치(主治)에 이어 약재로 사용가능한 모든 사물을 수(水), 화(火), 토(土), 금석(金石), 초(草), 곡(穀), 채(菜), 과(果), 목(木), 복기(服器), 충(蟲), 인(鱗), 개(介), 금(禽), 수(獸), 인(人)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약재로 이용되는 자연물은 물론, 인공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천’·‘지’·‘인’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한 『본초강목』의 분류체계야말로 물명서의 분류체계에 가장 근접한 것이다. 다만 궁실(宮室), 의복(衣服), 거마(車馬) 등을 비롯한 인공물의 분류체계는 『본초강목』보다는 기존의 유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물명서의 분류체계가 기존의 유서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본초강목』을 비롯한 의서 및 유서가 아무리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더라도, 해당 사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주변에서 구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정보가 되고 만다. 사실 한자어 명칭만으로 해당 사물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례로 이용휴(李用休)는 『본초강목』을 읽고서도 하마터면 독초(毒草)를 먹을 뻔 하였다는 경험을 소개한 적이 있다.²⁹⁾ 도판이 있다고는 하나 부실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8) “嘗讀爾雅與本草，多識卉木之名。”(李時省，〈策[梅]〉，『騏峰集』 권4)

다. 박규수(朴珪壽) 역시 『본초강목』의 도판이 정밀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물을 잘못 판별하면 백성에게 해가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³⁰⁾ 이 점은 앞서 이재위의 『물보』 서문에서도 지적한 내용이며, 물명서 성격의 저술 <잡설(雜說)>을 남긴 이가환 역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의서에 등장하는 자단(紫檀)은 중국 남해에서 나는 것인데, 조선 사람들이 당시 자단이라고 불렀던 별개의 나무를 이것으로 오인하고 약재로 삼을까봐 두렵다고 하였다.

물명서와 약재의 관련성은 일본 동양문고 소장 『물명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혜에 따르면, 동양문고 소장 『물명괄』에는 ‘약결초(藥訣抄)’라는 제목으로 향약과 구급방을 정리한 글이 실려 있다.³¹⁾ 정승혜는 이를 근거로 “필사자는 애초에 이 『물명괄』을 베낀 근본적 목적이 약재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³²⁾고 추정하였으며, 동양문고본 『물명괄』의 여러 항목 중 초목류(草木類)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 역시 “필사한 사람이 의원이나 약조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³³⁾고 하였다. 초목류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물명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물명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명서와 약재의 관련성에 대한 정승혜의 지적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9) “余嘗讀本草後，野行見有草，莖葉嫩肥欲採之，問于田婦，婦曰是名草烏，有大毒，余驚棄去。”(李用休, <好問說>, 『탄만집』)

30) “每恨李東璧本草綱目，爲本草家集成之書，而諸家形色同異之辨，紛然未已。李氏雖一一攷據訂正，而其繪畫未精，到今有誤採謬用者甚多。蓋未遇良畫師之故，流害民生，有如是矣。”(朴珪壽, <錄顧亭林先生日知錄論畫跋>, 『嘯齋集』 卷4)

31)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호, 국어사학회, 2014, 228~229쪽.

32) 정승혜(2014), 위의 논문, 229쪽.

33) 정승혜(2014), 위의 논문, 240쪽.

『물명유해』를 편찬한 이학규가 『식기보(食忌譜)』라는 저술을 남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학규는 당시 사람들이 물명(物名)과 물성(物性)에 어두워 식재료를 잘못 섭취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서(醫書)와 구전(口傳)을 바탕으로 『식기보』를 저술하였다.³⁴⁾ 『물명유해』와 『식기보』는 모두 김해 유배생활 중에 편찬된 것인데, 『식기보』의 편찬동기는 『물명유해』의 편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자 물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절실한 것이었다. 숙종조의 의관 이시필은 방대한 명칭 서적을 초록하여 『소문사설』이라는 저작을 남겼는데, 그가 명칭 서적을 초록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시필은 “우리나라 문헌은 징험하지 않아 사물의 이름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사람들이 바로잡지 않는다.”³⁵⁾고 한탄하였다. 그는 명칭 문헌에 나타나는 한자어 물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고유어 물명을 찾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어성초(魚腥草)에 대해서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지을 때에는 알 수 없다고 주석을 달았다. 나중에 여러 종류의 본초서를 보았더니 바로 약모밀[薺]이었다. 우리나라의 속명은 ‘멸’이다.³⁶⁾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약재의 한자어 명칭 아래에 그 이칭과 고유어 명칭을 주석으로 부기하였다. 하지만 어성초의 고유어 명칭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지 알 수 없다는 주석을 달았던 것이다. 이에 이시필이 여러 종류의 본초서를 널리 참고하여 어성초의 본래 명칭과 고유어 명칭을 밝

34) 李學逵, <答>, 『洛下生集』 冊10 ; <食忌譜序>, 『洛下生集』 冊11.

35) “我國文獻無徵, 物名訛僞, 無人校正.”(『謏聞事說』 『諸法』)

36) “魚腥草, 許陽平浚翁著東醫寶鑑時, 以未詳註解. 後閱諸家本草, 乃薺也. 東國俗名멸也.”(『謏聞事說』 『諸法』)

혀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소문사설』의 곳곳에 보인다. 이시필은 각종 기구 및 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한자어 명칭에 고유어 명칭이나 당시 조선에서 널리 쓰이던 한자어 명칭을 부기하였다.

조선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물명 정리 작업의 필요성은 이시필만이 절감한 것은 아니었다. 이덕무(李德懋)는 『본초강목』, 『군방보(群芳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따위의 책을 들고 늙은 농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유어 명칭을 확인하고 도보(圖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³⁷⁾, 서유구(徐有集)는 자서와 본초서를 살펴보며 물고기의 고유어 명칭을 알아내고자 하였다.³⁸⁾

19세기를 전후한 물명서의 편찬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물명서는 사물의 이칭만을 제시한 것으로,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물명서는 백과사전식 유서를 비롯한 기존의 저술에 실려 있는 풍부한 정보를 활용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물명서의 근본적인 편찬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언어와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일치시켜 해당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물명서의 편자들은 한자어 어휘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한자어 어휘 및 고유어 어휘를 제시함으로써 언어와 대상의 일치를

37) 李德懋, “恨不與足下齋本草綱目·群芳譜·和漢三才圖會等書, 逢田父野叟, 驗其俗名, 因為圖經也.”(李德懋, <與元若虛有鎮書>, 『雅亭遺稿』 卷7)

38) “今攷小學本草諸家, 參互校勘于土產方言.”(徐有集, <樂浪七魚辯>, 『金華知非集』 卷4)

도모하였다.

그간 물명서는 유서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으나,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백과사전식 유서에 해당하는 물명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전하는 물명서는 사물의 이칭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물명서는 자서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유서는 사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서는 언어와 대상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명서의 근본적인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 이것이 현전하는 대부분의 물명서가 유서류 물명서가 아닌 자서류 물명서에 해당하는 까닭이다.

물은 만물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만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물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물 개념의 차이에 입각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현전하는 물명서는 만물류 물명서와 사물류 물명서로 나눌 수 있다. 만물류 물명서 역시 구체적인 사물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 현전하는 물명서 중 사물류 물명서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는 점, 그리고 물명서 편찬의 중간과정을 보여주는 저술들의 내용이 대부분 사물류 물명서에 가깝다는 점 등에서 구체적인 사물이 물명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천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물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반영한다. 그간 물명서는 명청대 백과사전식 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사물에 큰 비중을 할애한 물명서의 분류체계는 본초서의 분류체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근수, 『物名考』와 『物譜』 해제, 『도협 월보』, 한국도서관협회, 11권 8호, 1970, 247~250쪽.
- 심경호, 「한국 類書의 종류와 발달」, 『민족문화연구』 47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85~137쪽.
- _____, 「朝鮮後期 漢字語彙分類集에 관하여」, 『조선후기 한자어휘 검색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7, 1~34쪽.
- 이가원, 「『物譜』와 實學思想」, 『인문과학』 5권,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60, 73~100쪽.
- 이병근, 「近代國語 時期의 語彙整理와 辭典의 展開」, 『진단학보』 74집, 진단학회, 1992, 195~213쪽.
- 이덕희, 「물보와 청판물명고의 사전적 특성」, 『새국어교육』 73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6, 255~283쪽.
- 전경목, 「속명유취 해제」, 『문헌과해석』 34집, 문헌과해석사, 2006, 169~179쪽.
- 정승혜, 「東洋文庫 所藏 『物名括』의 書誌와 茶山의 물명고 편찬에 관한 일고찰」, 『한국어학』 59집, 한국어학회, 2013, 227~244쪽.
- _____,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 『국어사연구』 18호, 국어사학회, 2014, 79~116쪽.
- 정은주,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 17집, 한국실학학회, 2009, 175~208쪽.
- 정은진, 「貞軒 李家煥의 物名에 관한 관심과 그 실천」, 『한자한문교육』 33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4, 227~269쪽.
- 최경봉, 「『물명고』의 온톨로지와 어휘론적 의의」, 『한국어 의미학』 17집, 한국어의 미학회, 2005, 21~42쪽.
- 홍윤표, 「18, 19세기의 한글 유사어와 실학: 특히 『물명고』류에 대하여」, 『동양학』 1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8, 475~492쪽.
- _____, 「柳愔의 『物名考』」, 『어문연구』 2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277~304쪽.
- _____,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집, 진단학회, 2013, 167~211쪽.

ABSTRACT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in the late Choson Dynasty

Jang, Yoo-se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motive for a compilation of a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in the late Choson Dynasty from the perspectives at the time, and review the features of the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by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 currently existing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book is to let readers accurately recognize the target which the words indicate by matching the words and the objects which are indicated. Thus, editors of the book try to match the words and objects by presenting Korean words and different Chinese words corresponding to the original one.

The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has been regarded as a kind of Chinese classical encyclopedias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objects, but most of existing books just present the names of objects. It is natural to regard the book as a kind of a dictionary with the purpose to match words and objects. In addition, whe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book is reviewed, it is found to mainly deal with specific objects. It suggests that interests in objects which are relatively neglected compared to Sky, Land and Humans are being highlighted.

It has been known that the books for the names of objects are influenced by the Chinese classical encyclopedias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book dealing with specific objects rather than abstract concept seems to be influenced by medicinal herb books which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on objects.

Key Words

The book for the names of objects, encyclopedia, dictionary, Chinese words, Korean words, medicinal herb book

논문투고일 : 2014. 10. 30

심사완료일 : 2014. 11. 29

게재확정일 : 2014. 12. 3

부록 : 현전 물명서 일람표³⁹⁾

	서명	저자	분량	시기	
1	葩經物名	宣祖命撰	1책	1613	경서어휘분류집
2	物譜	李哲煥 李載威	1책	1770~1802	草木部(494), 虫魚部(115), 虫彘部(95), 鳥獸部(131), 身體部(45), 人道部(308), 器械部(151), 器用部(150). ⁴⁰⁾
3	才物譜	李晩永	4권4책	1798	太極, 天譜, 地譜, 人譜, 物譜
4	廣才物譜	미상	4권4책	19세기경	天道部, 地道部, 人道部, 人倫部, 君道部, 臣道部, 形氣部, 民業部, 庶流部, 文學部, 禮節部, 軍旅部, 音樂部, 官室部, 衣服部, 飲食部, 器用部, 技戲部, 物性部, 火部, 金部, 玉部, 石部, 鹵石部, 草部, 穀部, 菜部, 木部, 竹部, 果部, 鱗部, 介部, 禽部, 獸部, 蟲部
5	物名考	柳僖	5권1책	1824	有情類(羽蟲, 毛蟲, 羸蟲, 水族, 鱗蟲, 介蟲, 昆蟲), 無情類(草, 木), 不動類(土, 石, 金), 不靜類(火, 木).
6	詩物名考	柳僖	1책	19세기초	경서어휘분류집
7	事類博解	沈孝淳 외조	2권1책	1855	天文部, 地理部, 人道部, 禽獸部, 草木部
8	物名類解	李學達	1책	18세기 말 ~19세기	天道部(38), 地道部(122), 金石部(11), 獸部(29), 禽部(35), 飛虫走虫部(50), 魚部(29), 人事類(61), 器用部·書畫部·飲食部(215). ⁴¹⁾
9	竹欄物名考	丁若鏞	1책	1819	草木類(309), 鳥獸類(151), 蟲魚類(190), 官室類(51), 舟車類(98), 服食類(151), 耕織類(83), 工匠類(59), 供奉類(124), 文武類(29), 戲俗類(42), 身體類(82), 事情類(29), 親屬類(37), 雜人類(11), 漁獵類(17), 雜事類(21)
	物名括				

39) 이 표는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진단학보』 118집, 진단학회, 2013)과 정승혜, 『물명류 자료의 종합적 고찰』(『국어사연구』 18호, 국어사학회, 2014)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0) 피정의항의 수는 김근수, 『『物名考』와 『物譜』 해제』, 『도협 월보』, 한국도서관협회, 11권 8호, 1970, 248쪽 참조.

41) 피정의항의 수는 정은주,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 17집, 한국실학학회, 2009, 191쪽 참조.

10	靑館物名考	丁若鏞 丁學淵	1책	19세기 초	野草類(118), 鳥獸類(117), 蟲魚類(160), 宮室類(43), 舟車類(79), 服食類(69), 耕織類(156), 工匠類(89), 供奉類(116), 文武類(97), 戲俗類(52), 身體類(146), 事情類(63), 親屬類(43), 雜人類(38), 漁獵類(24), 雜事(22), 藥名(8), 雜物類(13), 官職類(8), 雜流(54), 雜物類(39) ⁴²⁾
11	物名考	미상	1책(15)		다산 물명서 이본
12	物名考	미상	1책(29)		다산 물명서 이본
13	物名攷	미상	1책		다산 물명서 이본
14	物名考	미상	1책		다산 물명서 이본
15	物名錄	李鶴教	1책	미상	다산 물명서 이본
16	物名攷	미상	1책(16)	1884	다산 물명서 이본
17	字義物名隨錄	미상	1책(27)		다산 물명서 이본
18	物名攷	미상	1책	미상	다산 물명서 이본
19	物名考	미상	1책(17)	미상	다산 물명서 이본
20	物名類彙	미상	1책(46)	미상	天道, 節日, 人物, 飲食, 衣服, 器用, 樂器, 雜技, 書畫, 草木, 獸, 禽, 魚
21	語彙	미상	1책	미상	天地類, 節日類, 雜技類, 樂器類, 器用類, 衣服類, 飲食類, 書畫類, 人物類, 魚類, 禽類, 蟲類, 獸類, 艸類, 木類, 補遺類, 的對類
22	物名考類解	미상	1책	미상	다산 물명서 이본
23	物名考	미상	1책	미상	身體, 衣服, 鞍具, 器皿, 沙器, 陶器, 木器, 石物, 皮物, 食物, 各色餅, 正果種類, 造菓種類, 牛肉類, 切肉所入, 加添, 小肉所入, 穀部, 魚部, 果部, 菜部, 禽部, 獸部, 蟲部
24	名物紀略	黃泌秀	3권3책	1870	天道部, 時令部, 地理部, 帝屬部, 君道部, 臣職部, 官司部, 親屬部, 人品部, 性情部, 形貌部, 人事部, 文學部, 道術部, 典禮部, 百戲部, 居處部, 宮室部, 器用部, 舟車部, 貨寶部, 布帛部, 服飾部, 百穀部, 飲食部, 蔬菜部, 花卉部, 草卉部, 果品部, 樹木部, 飛禽部, 走獸部, 鱗介部, 蟲豸部

42) 피정의항의 수는 정승혜, 『東洋文庫 所藏 『物名括』의 書誌와 茶山의 물명고 편찬에 관한 일고찰』, 『한국어학』 59집, 한국어학회, 2013, 236쪽 참조.

25	物名纂	柳鳴川	1책	1890	天類, 人類, 身體, 衣冠, 雜魚, 疾病, 雜戲, 事情, 飲食, 雜事, 雜器, 耕織具, 舟車, 牛馬, 魚獵, 宮室, 牀席, 博奕, 書畫, 樂器, 穀粟, 草類, 木類, 花類, 蔬菜, 菜果, 木類, 獸類, 翅虫, 又獸, 蟲類, 魚類, 木果, 金石, 火類, 膠漆, 補類鈔.
26	博物新書	미상	1책	19세기	身體(77), 年紀(68), 稱號(105), 親戚(144), 師生(9), 朋友(32), 位分(187), 穀食(62), 食物(120), 果實(83), 木部(46), 花部(50), 草部(204), 菜屬(44), 藥鹽(21), 獸部(101), 鳥部(132), 魚部(107), 翼虫部(38), 瓜虫部(88), 衣服(48), 服飾(67), 農具(48), 器皿(82), 褥屬(18), 輶物(112), 樂器(32), 針線(23), 造饌(47), 粧服(15), 佩物(15), 寶貝(19), 寶物(30), 鐵屬(11), 石屬(9), 舟屬(15), 車屬(24), 類聚(17), 工匠(19), 治物(16), 織家(22), 無形題(13), 丹青(24), 雜類(29), 漁獵(17), 軍物(43), 緞屬(67), 紙屬(21), 手才(12), 扇屬(13), 物類(42), 戲屬(51), 事情類(59), 造室(70), 天文(42), 屬之天(65), 屬於地(88), 神部(67), 仙部(17), 佛部(4), 人事部(95), 喪事(64), 病類(41), 瘡類(37), 藥名(149), 茶名(19), 香名(5), 妙文字(42)
27	雜物類集	미상	1책	미상	天文類, 地理類, 禾穀類, 飲食類, 魚鮮類, 菜蔬類, 果實類, 布帛類, 衣服類, 冠帶類, 寶貝類, 佩琬類, 器皿類, 什物類, 文房類, 帳席類, 宮室類, 輪乘類, 博奕類, 樂音類, 軍物類, 染色類, 金石類, 花草類, 樹木類, 禽獸類, 虫介類, 雜用類.
28	松潤貳錄	金左均	2책	19세기 중반	服着彙, 植物彙, 什物彙, 家粧彙
29	新編文字類集抄	미상	1책(43)	미상	天部, 地部, 居處部, 人部, 僧佛部, 文部, 武部, 身部, 巧藝部, 器用部, 玉帛部, 飲食部, 草木部, 禽獸部, 茶薰部, 農部, 行部, 化部, 雜部
30	字會抄	미상	1책	19세기 말	
31	雜同類纂	미상	1책	미상	다산 물명서 이본
32	俗名類聚	미상	1책	1903	人倫(115), 人品(149), 人事(170), 文書(85), 方言(272), 器用(189), 魚肉(81), 飲食(67), 菜果(38), 衣冠(31), 節日(105), 居處(38), 國家(34) ⁴³⁾

33	物名集	韓中洙	2권2책	1910	衣冠部(16句), 飯羹部(17句), 家垆部(22句), 器械部(46句), 禽鳥部(10句), 獸牲部(11句), 昆蟲部(9句), 鱗介部(6句), 花草部(14句), 樹木部(10句)
34	萬物錄	미상	1책	1911	天文類, 地理類, 人事類, 體部類, 禾穀類, 飲食類, 魚鮮類, 菜蔬類, 果實類, 布帛類, 冠帶類, 衣服類, 鞋屨類, 寶貝類, 佩玩類, 器皿類, 什物類, 文房類, 帳席類, 宮室類, 輻束類, 船隻類, 量衡類, 書寫類, 畫圖類, 紡織類, 寶石類, 花草類, 樹木類, 禽獸類, 介虫類, 工器類, 冶匠類, 泥匠類, 音樂類, 軍器類, 雜技類, 雜錄類, 染色類, 文體類, 取才類
35	課程日錄	미상	2책	미상	天文, 地理, 花卉, 花木摠言, 禽獸, 昆蟲, 禽獸摠言, 人倫人事, 性行, 儒學, 文藝, 技術, 邦製, 仕止, 理生, 宮室, 器皿, 舟車, 金寶, 綵色, 服用, 食饌, 疾病, 喪祭, 雜類, 兵戎, 刑獄, 音樂
36	朝鮮語彙	미상	1책(14)	미상	무역용어
37	醫學語彙	미상	1책(23)	미상	의학용어
38	物名類聚式	미상	1책	1927	農產物, 植產物, 造產物, 水產物, 織產物, 工產物, 木造物, 鐵造物, 窯產物, 雜品物
39	日用備覽記	미상	1책(22)	1937	文房具, 器用具, 飲食具, 果實具, 衣服具, 身體具, 花具, 草具, 羽虫具, 毛虫具, 人物具, 婚具.

43) 피정의항의 수는 전경목, 『속명유취 해제』, 『문헌과해석』 34집, 문헌과해석사, 2006, 174쪽 참조.